

도입
기도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이 가까워
질수록 기쁨과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양 그 어린 주 예수 Away in a Manger

1.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꿀 위에 자네
2.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3.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 Away in a manger, no crib for a bed,
The little Lord Jesus laid down His sweet head,
The stars in the bright sky looked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on the hay.
2. The cattle are lowing, the Baby awakes,
But little Lord Jesus, no crying He makes.
I love Thee, Lord Jesus! look down from the sky,
And stay by my cradle till morning is high.
3. Be near me, Lord Jesus, I ask Thee to stay,
Close by me forever, and love me, I pray.
Bless all the dear children in Thy tender care,
And take us to heaven, to live with Thee there. Amen.

본문 요한일서 1:1-4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 John 1:1-4

1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looked upon and have touched with our hands, concerning the word of life— 2 the life was made manifest, and we have seen it, and testify to it and proclaim to you the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was made manifest to us— 3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we proclaim also to you, so that you to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indee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4 And we are writing these things so that our joy may be complete.

요한은 그의 서신을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일 1:1). 이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렇게 살아라’는 조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복음, 선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속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고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일 1:4). 성탄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을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는 결국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낮아지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교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결국 성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고, 기쁨이 세상에 임하고, 겸손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된다. 요한이 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도 비추어져, 이 은혜와 교제와 기쁨과 겸손이 성탄의 계절 속에서 우리 삶을 더욱 깊게 채워길 바랍니다.

설교

John begins his letter with an astonishing declaration: "Concerning the Word of life, who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 (1 John 1:1). This means that the eternal God took on flesh and came to this earth as One who could be seen, heard, and touched. Christmas is not the story of humanity reaching up to God—it is the story of God coming down to us. The meaning of Christmas begins with salvation given by grace. If God Himself had to come, it means we are utterly unable to save ourselves. Therefore, Christmas is not advice saying "live like this," but the gospel we receive—a salvation given as a gift. Salvation is not earned by our merit but is a free gift from God. Yet Christmas is not only about salvation. Christmas promises fellowship with God. John says, "We proclaim to you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1 John 1:3). God did not come merely to forgive sins—He came to invite us into a deep and real relationship with Himself. And this fellowship brings joy. John writes,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1 John 1:4). The joy of Christmas does not come from circumstances but from the unchanging truth that God is with us. The One who created the world came among us, and He will never leave us. Finally, Christmas reveals the astonishing humility of God. The eternal Word came as a baby—small, fragile, and dependent on others. The manger ultimately points to the cross. If the Son of God humbled Himself this far, then there is no room for pride in the Christian life. The humility of Christ calls us to bow before God and to live a life of serving others. In the end, the meaning of Christmas is this: Grace comes down to us, God comes near to us, joy enters the world, and humility becomes the way of life for those who believe. May the glory of the Word made flesh—which John witnessed—shine upon our hearts, so that this grace, fellowship, joy, and humility fill our lives more deeply throughout this Christmas season.

나눔 질문

1.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손으로 만지듯 가깝게 느껴졌던 '임마누엘(우리와 함께하심)'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최근에 경험한 작은 은혜나 감사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When was a moment in our family's life when God felt not distant, but as close as if you could touch Him with your hands? Let's share a small grace or something we've been thankful for recently where we felt 'Immanuel' (God with us).
2.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기쁨(위로, 평안 등)을 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The reason we worship and pray is to become 'intimate' with God. How closely have you been communicating with Him lately? Let's talk about what kind of practical joy (such as comfort or peace) this fellowship with God brings to your life.
3.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우리 가족이나 주변 이웃을 위해 낮아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In imitation of Jesus' humility, what is one specific action you can take this week to serve our family or neighbors with a humble heart?

마침 기도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온 가족이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보이고 만져지는 사랑으로 오신 주님과 매일 깊이 교제하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Lord of Grace, may our entire family humbly receive Your priceless gift of grace, as You personally came down to this lowly earth to save us. Let us walk in deep fellowship every day with You—the Love that was made visible and tangible—and through that communion, let us experience a fullness of joy that the world cannot give. Grant us the strength to live with the unshakable assurance of Immanuel, regardless of our circumstances. Following the humility of Jesus, may we serve one another with lowly hearts and become holy channels that overflow Your love into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 제목

1.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값없는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May our family humbly receive Your free gift of salvation, relying not on our own merits, but only on Your grace.
2. 주님과과의 관계에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소서.
May our home overflow with the fullness of joy that the world cannot give, springing from a deep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Lord.
3. 성탄의 계절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겸손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In this Christmas season, make us humble channels of Your love, reaching out to our neighbors who are in need.